

靜態均衡下에서의 貿易이 國內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

金 文 瑄

— 目 次 —

- | | |
|--------------------------|--|
| 一. 序 論 | 2. Bertil Ohlin 理論 |
| 1. 序 言 | 三. 保護關稅가 分配에 미치는 效果 |
| 2. 分配의 意義 | 1. 保護關稅와 賃金과의 關係 |
| 3. 「貿易과 國內分配問題」의
先決條件 | 2. 需要彈力性 및 關稅收入 支出方
向을 고려한 경우의 保護關稅
效果 |
| 二. Heckscher-Ohlin의 命題 | 3. 結 語 |
| 1. Eli Heckscher 理論 | |

Kim Moon-kwan :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in static Equilibrium.

SUMMARY

This article is about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in static equilibrium and it consists of three parts; introduction, Heckscher-Ohlin theorem and the effect of the protective tariff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1) The introduction is a study on the meaning of distribution and the necessary condition for which we can treat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J. M. Clark said that there are three kinds of distribution—contractual distribution, personal distribution and functional distribution and that economists have treated only the functional distribution.

A. C. Pigou explained that it is because one person has not a single factor of production, but many factors. Classic economists considered the quality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as the same when they studied foreign trade.

J. E. Cairns, however, said that the factors of production are not the same quality, but that there are non-competing groups and that competition can not be done freely between these groups.

Haberler also said that we must assume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qualities

of labor as well as factors of production.

It means the various levels of wages for that the quality of factors of production are different and so.

We can study the effect of foreign trade on domestic distribution of income.

II) The content of Heckscher-Ohlin theorem is about the decision of foreign trade patterns of each country and equalization of factor prices between trade countries. In the mean, since this article is on income distribution, only the equalization of factor prices between trade countries shall be discussed.

Eli Heckscher assumed that the quality of factors of production has no change, moved freely between industries, and a constant of amount of factors of production in a country, even if the country begins foreign trade.

He also assumed that the levels of techniques are the same between trade countries, and that there is not the possibility of substitution among the factors of production.

Foreign trade takes place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comparative cost, and free trade makes absolute prices of all commodities equal and this makes not only relative prices of factors of production, but absolute prices equal.

Ohlin also supported the theorem of factor price equalization as Heckscher did. But their explaining process is different.

Heckscher insisted that production techniques of similar goods are the same even if the relative prices of factors of production are different, and this is what makes the comparative cost of each goods different. On the contrary, Ohlin said that the technique coefficient of similar goods is different, because relative prices of factors of production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Therefore, the result is that the comparative costs are unequal.

III) Samuelson and Stolper insisted that a protective tariff makes domestic prices of imported goods higher than those of exported goods, so free trade makes the standards of living of laborers worse in a country which has relative scarcity of labor.

But Mezler explained that the theory of Samuelson and Stolper is right only when the elasticity of demand of the importing country to the commodity of exporting country is larger than 1, but if the demand of the importing country is inelastic, all of the tariff revenue is used for being exported commodities.

In conclusion I tried to apply this theory to our country, but now it is beyond my ability.

一. 序 論

1. 序 言

D. Ricardo는 比較生産費의 原理에 依하여 貿易當事國에 利益이 된다는 것을 立證하였으며

J. S. Mill은 상호수요 법칙에 依하여 貿易利益이 貿易當事國에 어떻게 分配되는가를 說明하였으나 貿易當事國에 가져오는 利益이 國內에서 어떻게 分配되는 가는 1919년 Sweden의 Eli Heckscher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外國貿易의 效果」를 發表하기 전까지는 貿易 理論이나 國際經濟學은 주로 貿易 利益의 大小貿易構造의 決定要因 貿易에 依한 雇傭效果等に 主眼하여 貿易의 國內분배 問題는 별로 취급되지 않았다. ¹⁾

勿論 1813년에서부터 1820년대에 걸쳐 D. Ricardo와 T. R. Malthus의 有名한 Corn Law Controversy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穀物의 輸入에 依한 分배에 미치는 영향만 다루었을 뿐 아니라 輸入 制限國인 英國에 對해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特殊的이며 一方的인 것이어서 貿易이 國內분배에 미치는 一般의인 理論 體系는 缺如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li Heckscher가 1919년에 前記 論文을 發表하였으나 別로 關心을 끌지 못했으며 Laursen이 前記 論文을 Reading i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에 英譯하고 1948~9년에 걸쳐 Samuelson이 Heckscher의 命題를 近代經濟學에 끌어들여 整理하므로써 많은 經濟學者들의 關心을 끌기 始作했으며 1950년에 Leontief paradox가 出現한 후 數年間은 最高潮에 達한 느낌이 있었다. ²⁾

오늘날 세계 무역은 전세계의 生産 雇傭을 增大시킴으로서 세계 인류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1931년의 프랑스의 輸入割當制를 採擇함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人爲的인 輸入制限 政策을 弛緩하여 價格의 自動調節機能에 依하는 무역의 自由化를 指向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자본이 부족하고 技術의 後進성을 면치 못하여 모든 産業이 거의 유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單純히 價格調節機能에만 依存할 수는 없으나 GATT 加入과 Kennedy Round에의 參與 그리고 貿易方式에 있어서 Negative list system의 採擇으로 서서히 貿易의 自由化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産業은 거의가 유치산업이기 때문에 우선 貿易政策의 重點이 무역자유화의 政策과 모순없이 유치산업을 보호해가며 어떻게 輸出을 增進시킬 것이냐 하는데 두어야 하겠으나 그와 못지 않게 貿易자유화의 方向으로 나가는데 무역의 國內分配에 關하여도 考慮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貿易政策이 富의 편중을 招來하는 方向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이며 貿易에 依한 經濟的인 厚生을 可及的 높임으로서 現代 國家들이 指向하고 있는 經濟的 福祉國家에로 한걸음 다가서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筆者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貿易이 國內분배에 미치는 效果에 對한 연구가 별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勿論 이는 우리 나라가 아직 開發途上國家이기 때문에 分배보다는 生産에 依한 資本蓄積이 急先務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1967년 7월 25일부터 輸出入에 關한 禁止品目과 制限品目만을 期別公告上에 表示하고 不表示品目에 대해서는 輸出入을 자유로이 開放

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採擇하므로써 앞으로 關稅의 役割이 차츰 중요하게 되어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筆者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다루기가 부끄럽기는 하나 앞으로의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契機를 마련 한다는 意味에서 Heckscher-Ohlin의 命題를 중심으로 靜態均衡下에서의 分배 문제를 살피고 關稅設定이 國內分배에 미치는 효과를 考察해 보려고 한다.

2. 分 配 의 意 義

社會에서 해마다 생산된 總生産物의 價値에서 그 生産을 위해 소모된 生産財의 價値를 뺀것 即 純生産物의 가치는 그 生産에 參加한 勞動者 地主 및 資本家에게 分배되게 되는데 이렇게 所得이 형성되는 過程을 分배라고 하는데 J. M. Clark는 어떤 生産物을 생산하는데 生産要素를 提供한 사람들에게 分배될 때 수익을 決定하고 있는 契約에 依하는 契約的 分배 (Contractual distribution) 受取하는 個人에 依한 個人的 分배 (Personal distribution) 所得源泉을 형성하는 機能 혹은 要素에 依하는 機能的 分배 (Fuctional distribution)의 3종류로 分류하고 있으며 이 3종류의 分배중 經濟理論에서 다루어온 것은 기능적 分배뿐이라고 말하고 있다.³⁾

A. C. Pigou도 그의 第二命題의 展開에 있어서 「우리들의 연구는 어떤 요인의 國民分配分の 크기 및 富者와 貧者間의 分배에 가져오는 비교 효과에 關한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分배에 미치는 效果를 직접 檢討할 수 있는 어떠한 用具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經濟學者들은 다른 意味 즉 種々の 生産要素間의 分배에 미치는 諸力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으며 또한 이 分析을 共通財産으로 해왔다. 이들 2種의 分배는 同一한 것은 아니다. 만약 각 要素가 어떠한 다른 要素를 제공하지 않은 一群의 사람들에 依하여 제공되어 지는 것이라면 이들은 同一한 分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원래 現實生活에 있어서는 같은 사람이 여러가지 要素를 일부분씩 提供해서 그의 所得을 얻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例를 들면 地主는 단지 土地의 所有者일뿐 아니라 그 土地에 資本을 投下하든가 혹은 土地에 농업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經營才能을 發揮하는 것이 普通이며 이때 그가 얻는 所得은 一部는 地代 一部는 投下資本의 利子 一部는 經營才能의 代價로서의 利潤, 賃金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資本家は 때때로 두뇌 노동자 자본 提供者 위험부담자를 겸하기 때문에 그의 所得은 賃金 利子 利潤의 합성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諸考慮에서 生産요소간의 分배에 關한 諸原理를 개인간의 分배에 關한 諸문제에 직접 혹은 無制約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고 Pigou는 判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經濟學에는 개인적 分배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요구가 결핍되고 있다.⁴⁾ 例를 들면 「파레토」係數 「지부라」係數 「로렌즈」曲線 등은 直接 所與의 國民경제에 있어서 개인적 分배의 狀態를 나타내는 表現手段이기는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있는 事實을 나타내는 것에 불

과하며 그 자신 분배 그 自体를 분석하는 용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산요소는 勞動資本 및 土地의 세가지다. 資本은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서 이전의 勞動의 성과가 축적된 것이며 土地는 地下에 있는 것이든 地表에 있는 것이든 을 막론하고 自然이 제공하는 원료 및 生産要具를 말한다. 이들 생산요소는 언제든지 따로 따로 占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産業社會는 地主 자본가 및 生産勞動者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들 계급은 각각 생산물의 몫을 얻는다. 이들 이외의 계급은 이들 계급으로부터 生産物의 양도를 받지 않으면 생산물을 전연 얻을 수가 없으며 이들 계급은 사실상 그의 不生產的 勞動을 제공하여 그 代價로 이들 계급(生産者階級)에 依하여 부양되고 있으며 經濟的面에서 社會는 이들 3계급 즉 생산적 계급 不生產的階級 地主로 이루어지고 있다⁶⁾고 말하므로서 重農主義學派의 생산물의 계급적 분배와 Adam Smith의 生産要素價格論과를 融合시킨 J.S. Mill도 Pigou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Pigou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 분배가 生産要素論的分析으로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表現을 使用하지는 않았으나 지주계급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인 3생산계급의 상대적 분배의 問題가 생산요소로서는 충분히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이러한 의미에서는 Pigou와 다르나 그 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동일계급이 複數의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귀착됨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Pigou와 같다.

이와 같이 J.S. Mill이 생산요소의 대가로서의 분배와 계급적 분배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點을 지적한데 반하여 Pigou는 생산소요의 상대적 몫과 개인적 분배 혹은 貧富 즉 所得階層의 分配와의 차이를 문제로 하고 있는데 Pigou 時代는 Mill의 시대와 달라 다른 종류의 생산요소를 소유하므로써 생기는 두개의 분배개념차이는 實際로 統計上 無視해도 좋을 정도로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계급적 분리가 보다 확실히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Pigou는 第一次大戰 前이기는 하나 당시 임금노동자가 얻는 임금 이외의 수입(財産所得)은 이들 總收入의 35분의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實證하여, 7) 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임금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하여 취급하더라도 하등의 중대한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가와 노동력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와의 階級分裂은 西歐諸國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 확실히 나타났다. 즉 小營業主 소지주등의 계급 대신 賃金勞動者階級이 國民中大部分을 차지하게 되었고 一方 소위 獨点資本家와 大農場主가 대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近代經濟學들에 依하여 實證되고 있다. 例를들면 Hansen은 19世紀의 經濟計劃의 目的이 이들 小農 小營業主의 經濟를 安定시키는데 있었든데 反하여 20세기의 經濟計劃의 目的은 傭대한 賃金勞動者에게 직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⁸⁾

말하자면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勞動階級은 生産요소로서는 勞動力 밖에 갖지 못하고 있으

며 자본을 가지고 있는 資本家階級과의 분리가 확실히되고 있으며 他面 地主階級の 존재는 거의 無視해도 좋을 정도다. 따라서 所得分配의 機能의 分析에 있어서는 생산요소 가격인 賃金 利潤 地代中 主로 賃金對 利潤의 相對的 變化를 연구하면 충분하며 한계점이 여러 생산요소를 所有함으로써 생기는 차이는 별로 문제시할 것이 못된다. 물론 西歐諸國에 비해 前資本主義的 要因을 國民經濟內部에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영세자본 영세농가가 국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 資本土地 勞動을 겸유하고 있는 소득층에의 소득분배의 변화는 생산요소 가격인 賃金 利潤 地代의 相對的 變化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西歐諸國의 國民經濟를 理論的 model로 하는한 이에 관한 차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된다. 물론 계급전체로서의 相對的 몫이 決定된 後에도 各階級內部에서의 개인적분배 問題가 남게된다. 卽 같은 資本家階級이라 하더라도 大企業對 中小企業의 利潤格差 勞動者階級內에 있어서도 존재하는 賃金格差等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는한 純理論的으로는 靜態均衡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格差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資本 勞動은 보다 높은 보수를 찾아 各産業 各企業을 自由로이 이동하는 結果 同種의 生産要素의 均衡價格은 하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格差가 경쟁의 불완전성 요소의 異質性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든가 왜 어떤 사람들은 劣惡한 勞動力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낮은 賃金을 받는가 왜 어느 企業群은 영세한 자본밖에 가져 있지 않아서 낮은 이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문제는 生産要素所有分布의 要因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도연구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特히 이 경우는 다른 종류의 생산요소의 所有分布가 아니라 同一 種類의 요소 例하면 勞動力의 質, 量의 노동계급내의 소유분포가 問題된다.

그러나 動態的인 面에서 고찰한다면 제도적 면을 떠나서 순이론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例하면 賃金格差를 各産業의 成長率差에서 찾아내는 것은 널리 行해지고 있는 일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經濟學史는 經濟學이 소득분배의 機能的 側面에 주력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元來 소득분배는 이 機能的 分配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理論的 手段은 機能的 分配를 주로하는 생산요소론이며 더욱이 이 기능적 분배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 卽 요소소유분포와 요소가격중 理論上으로는 주로 후자에 對하여 연구 되었으며 따라서 以下の 論議에 있어서도 소득분배를 기능적 측면서 다루려고 한다.

3. 「貿易과 國內分配問題」의 先決條件

생산요소를 單一한 것으로 貿易論에서 前提하는한 貿易의 국내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論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생산요소를 同質이며 自由로이 移動할 수 있다는 勞動이라는 단일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D. Ricardo나 J. S. Mill의 理論에서는 貿易에 依한 국내분배 문제를 취급할 수가 없다. J. S. Mill이 理論經濟學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勞動을 4개의 等級 卽 自由職業 高熟

練手工聯 低熟練手工職 不熟練勞動者로 나누기는 했으나 國際貿易論에서는 同質의 勞動을 唯一의 生産요소로 다루고 있다.

貿易理論內에 勞動의 異質性을 最初로 도입한 것은 J.E. Cairnes이다. 그는 勞動을 不熟練勞動者 職人 (2流의 熟練勞動者) 高級의 生産者 또는 商人 學者 및 實業家⁹⁾로 나누어 이 4개의 group間에는 移動性이 없으며 따라서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는 무경쟁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각 group의 賃金水準은 이들 各各에 대한 相互需要의 크기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하였다. 왜냐 하면 group間에 移動이 없으므로 各 group에 대한 노동수요의 相對的變動에 따라서 供給이 變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無競爭集團의 各 賃金水準은 이들 各各에 대한 相互需要의 크기가 決定하는 것이며 Ricardo, Mill流의 勞動의 辛苦度 (the severity of toil)가 決定하는 것이 아니다. Ricardo나 Mill은 各國內의 各財의 相對價格은 궁극적으로는 各財의 相對的的正常價値와 一致하며 이 價値는 各各의 財에 대한 消費勞動量(辛苦度)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한다.

勞動市場이 完全 경쟁상태 하에 있다면 賃金은 各 勞動의 辛苦도와 比例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各국의 各財의 가격은 가치와 一致한다. 즉 實質生産費와 一致하며 이 生産費는 完全 경쟁의 조건하에서는 임금을 가지고 계산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勞動市場에 無競爭이 존재하는 경우는 임금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生産 비중의 노동부분을 代表할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소비노동량으로서 계산한 生産비와 支拂賃金を 내용으로 하는 가격간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Cairnes의 表現에 따르면 가치를 결정하는 원리로서의 生産비는 경쟁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만 作用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⁰⁾

以上の 意味는 무역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국내 가격의 比較差이며 이 국내 가격은 각 무경쟁집단의 임금수준에 의하여 제약된다. 이 임금수준은 각 집단노동에 대한 相互需要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으로 Ricardo가 比較生産비설에 의해서만 무역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生産비 (소비노동량 혹은 노동의 辛苦度로 계산한 실질 生産비)가 變動하지 않더라도 상호수요의 變動에 의한 賃金의 상대적 변동이 일어나면 무역구조는 변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Ricardo의 比較生産비설을 가지고서는 說明할 수 없는 것이다.

貿易과 분배와의 본 문제로 돌아가서 比較生産비설에 있어서 노동의 분열은 일반적으로 輸出品 또는 輸入競爭品 生産에 사용되는 무경쟁집단 노동에 대한 상호수요를 변화시켜 이의 所得을 상대적으로 변화시키며 여기에서 무역이론내에 분배의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契機가 생긴다.

이를 계기로 해서 Manoilesco는 보호무역이론을 전개시켰다. 그는 農業國 國內에 農業과 제조업의 2産業에 속하는 2개의 무경쟁집단이 존재하며 농업노동은 제조업 노동에 비하여 賃

금이 낮다고 가정하여 이러한 나라는 높은 임금 때문에 제조업은 비교가격불이익으로 말미암아 자유무역이 행해지면 상대국의 제조품이 염가로 수입된다. 원래 제조업 임금이 농업임금에 비해 높은 이유는 제조업 노동이 농업노동보다 생산성이 높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이 수입제조품에 압박되어 生産이 축소된다면 이것은 국민소득상 손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國內製造業의 製品價格만큼 되도록 수입제조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역쟁집단개념은 국내소득분배와 貿易과의 관련을 직접 연결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J. E. Cairnes가 노동이라는 一要素의 분열에 의하여 貿易의 국내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대하여 Gottfried Von Haberler는 특수요소와 비특수요소의 개념을 도입시켜 勞動과 勞動 以外の 生産요소와를 對置시키므로써 貿易과 국내소득 분배와의 關係를 論하고 있다.

특수요소라 함은 어떤 생산물의 생산에만 필요로 하며 다른 用途에는 轉用할 수 없는 생산요소를 말하며 例를 들면 석탄생산에 있어서 炭田 밭을 생산하는데 논밭등은 특수요소이며 비특수요소는 어떤 생산물의 생산에도 轉用될 수 있는 생산요소를 말한다.

Haberler는 무역이 이들 各種 特殊 非特殊 生産手段의 상대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命題를 提出하고 있다. ① 貿易開始는 그 나라의 수출산업의 特殊한 타산업보다도 수출산업에 相對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인상시킨다. ② 貿易開始는 比較不利益産業(이제 축소되거나 방지되지 않으면 안될 산업)에 特殊한 모든 요소의 가격을 引下시킨다. ③ 貿易開始는 여러 종류의 用途에 使用할 수 있는 비특수 요소의 가격을 引上시킨다. 理由는 貿易開始가 총생산을 增大시키기 때문이다. 단 이 가격상승의 정도는 ①의 특수요소 가격상승 보다는 적다.

이 3개의 命題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분배 변화를 의미한다. 무역개시에 의하여 수입경쟁품 산업에 特殊한 要素 소유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수출품 산업에 특수한 요소 소유자의 所得은 증가하며 非特殊한 요소 소유자의 所得 또한 增加한다¹⁾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요소가 특수성을 가지는 가는 長期와 短期에 따라 다르다. 장기적으로 보면 高度의 特殊한 생산수단으로서는 主로 農業에 使用되는 생산수단으로서 土地 또는 모든 종류의 自然資源을 들 수 있으며 農業 以外の 産業 즉 製造業 商業 輸送業 등은 장기적으로는 특수요소의 성질을 별로 갖지 못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建物設備 수송수단 中間生産물 등의 대부분은 특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입품과의 경쟁력의 변화 關稅率의 增減 기타 對外經濟 關係의 變化에 依하여 그 利害關係는 크다 그러나 勞動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들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비특수요소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勞動은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성의 一般的增大에 依하여 이익을 보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특

수화되어 移動性이 결여되어 있는 勞動者의 group은 특수요소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外國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特히 賃金은 勞組의 존재 정부 간섭등의 理由로 硬直性을 갖는다면 貿易變化에 依하여 영향을 받는 諸產業에서 발생하는 만성실업이라는 형태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Haberler는 說明하고 있다. 그는 結論적으로 자유무역에 依한 國際分業의 增進은 기술진보와 비슷한 效果를 가지며 기술의 진보는 勞動의 상대적 分배분을 增大시킨다는 Pigou, Hicks의 理論을 빌어 貿易의 進展은 勞動階級 總所得의 절대적 크기뿐 아니라 小數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相對的 分배분도 增加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12)

이상은 勞動이 同質이라는 것과 各 產業間 移動이 可能하다는 前提에서의 論議인데 만약 各 國內의 勞動이 異質의 無 경쟁 집단으로 分열된다 하더라도 전기 結論은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無 경쟁 집단에 의한 賃金格差의 요인을 4가지 型으로 分類하여 고찰하고 있다. 賃金格差의 요인으로 그가 들고 있는 것은 ① 勞動의 質差 ② 法律慣習 또는 勞組의 압력에 의하여 새로운 供給의 制限으로 그 group 內의 勞動者 數가 一定한 경우 ③ 일 그 자체의 快不快 정거적인가 부정거적인가 하는 문제 ④ 勞組의 獨点力 法制 등에 依하여 새로운 供給이 制限되어 있지 않으나 그 職業의 賃금이 異常히 높은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①은 단지 質의 차가 賃金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술의 結論은 타당하며 ②의 경우도 이러한 獨占 group의 제품이 수출되면 需要增加에 依하여 임금의 등귀하고 수입되면 수입품과의 경쟁에 의해 賃금이 하락하며 어느 경우에도 國民所得은 증가하므로 전술의 結論은 타당하다. ③은 各 職業의 非貨幣的利害와 貨幣賃金과의 總計 결국 純利得은 相等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로서 전술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自由貿易은 貨幣로 表示된 國民所得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純利得(net advantage)으로 表示된 國民所得을 항상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 또한 전술의 結論의 實質的 타당성을 保持한다. ④의 경우는 供給은 彈力的인데도 需要變動 如何에 불구하고 賃金水準은 일정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전술의 結論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에 의하여 이와 같이 實際賃金보다 훨씬 높은 賃金水準이 人爲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集團의 製品이 수입되면 그 나라는 貿易不利益을 받게 된다. 그것은 그릇된 方向에 特化를 했기 때문이다. 이리므로 자유무역은 總생산을 減少시키며 더 나아가서 비특수요소인 勞動의 收入은 무역으로 말미암아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1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無 경쟁 집단의 존재를 認定한다 하더라도 자유무역은 勞動所得을 增大시킨다고 Haberler는 이야기 하고 있다.

二, Heckscher-Ohlin의 命題

1, Eli Heckscher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무역과 국민소득분배와의 關係를 正面으로 취급한 것은 Eli Heckscher이며 Heckseher의 命題를 그의 後繼者 Ohlin이 一般均衡理論의 立場에서 擴充함으로서 소위 Heckscher-Ohlin Effect 혹은 Heckscher-Ohlin Theorem으로 알려지고 있다.

本命題는 각국의 貿易型決定의 논리와 이의 系로서 무역당사국간에 생산요소 가격이 균등화한다고 하는 논리이다. 本論文의 목적이 무역과 분배와의 關係를 다루는데 있으므로 以下에서는 무역당사국간에 생산요소 가격의 균등화 問題를 다루려고 한다.

무역의 소득분배에의 效果에서 Heckscher의 분석의 核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各個人이 자생산요소를 소유하여 그 소유상태 (생산요소의 各人에의 분배상태)가 不變인 경우 요소 가격의 相對的變動은 當然히 個人所得의 變動을 일으킨다. 이는 결국 무역이 생산요소의 상대 가격을 어떻게 變動시키는가 하는 問題에 歸着한다.

생산요소 가격균등화의 命題를 논술함에 있어 자생산요소에 對하여 Heckscher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즉 무역이 개시되더라도 자생산요소의 質은 變하지 않는다. 國內各產業間移動은 자유로우며 국내존재량은 不變이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무역이 當事國 국내 자생산요소의 상대 가격을 어떠한 方向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자생산요소가 全体로서 受取하는 相對的 몫 (relative share)이 어떻게 變動할 것인가를 문제로 하여 소득분배의 構造變化를 究明하려는 것이다.

그는 古典派貿易論에 있어서 무역발생의 계기인 비교생산비차와 자생산요소의 相對的稀少性 (요소가격의 상대비)의 차등에 必然적 關聯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각국의 各財의 생산기술이 同一하다면 비교생산비차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차로 고쳐 생각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각국의 비교생산비차를 없애는 傾向이 있으므로 각국의 자생산요소 가격의 相對比 또한 다음과 같은 過程을 通하여 균등화된다고 한다.

이제 2國 A, B 2商品 X, Y 2생산요소 a, b의 경우를 예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정 위에서 說明을 展開하고 있다 ① 2財 X, Y는 그것이 A국에서 생산되거나 B국에서 생산되거나 各各 同一한 생산기술에 依하여 생산되고 있다. 즉 양국간에 있어서 2財의 자 생산 기술은 各各 共通이며 그위에 兩財의 技術係數는 생산량의 增減에 불구하고 不變이다. ② X, Y 2財의 技術係數는 다르다.

이와 같은 2개의 가정하에서 A, B 양국에 있어서 비교생산비차가 존재하기 위한 (무역이 행해지기 위한) 必要條件은 양국에서 a, b 양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다를 경우를 除外하고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 條件이 成立해서 A, B 양국간에 상품 X, Y의 交易가 시작되어 비교생산비차가 축소됨에 따라 양국내에 있어서 생산요소 a, b의 상대가격비 또한 共通比率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前提에 依하여 상품 X, Y의 技術係數는 양국에서는 共通이나 兩財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X財는 Y財에 比하여 그 생산에 있어서 생산요소 a를 b보다

많이 使用하고 Y財는 b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 A國에는 a요소가 b요소에 比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B國에서는 이와 반대로 b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X財의 A國에 있어서의 比較생산비차는 B國의 그것보다 적으므로 A國은 X財를 增産해서 이것을 B國에 수출하고 B國으로부터 Y財를 수입하려고 할 것이며 같은 理由로 B國은 自國內의 安價한 b要素를 많이 使用하는 Y財를 增産해서 수출하고 이와 교환으로 X財를 수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A국에서는 a요소 B국에서는 b요소에 대한 需要가 增加하게 되며 輸入競爭產品의 생산은 축소되기 때문에 A국에서는 b요소 B국에서는 a요소의 一部分가 생산에서 解放될 것이다. 이와 같은 結果는 A國에서는 a요소의 相對的 稀少性은 增大하고 b요소의 相對的 稀少性은 減少할 것이며 B國에서는 이와 반대방향의 傾向이 발생하여 양국에 있어서 a, b 兩生産要素 價格의 相對比는 均衡화하게 된다. 자유무역은 궁극적으로 모든 財貨의 價格을 均衡화하게 하므로 이를 通하여 生産요소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均衡화 시킨다.

이상 이 Heckscher 命題의 골자인바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이 Heckscher의 이 論理의 根底가 전부 古典學派의 立場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은 X, Y 양財의 生産기술에 있어서의 諸制約을 보면 쉽게 理解할 수가 있다. 근대적인 말을 빌린다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양국간에 共通한 양재의 生産함수는 linear function으로서 요소간에 代用關係가 認定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역에 依한 特定要素의 解放 또는 tight하게 됨에 依하여 要素價格變動을 說明하려는 態度는 限界生産力 概念이 아닌 需給關係에 依하여 生産요소의 價格을 說明하는 Smith 以來의 傳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점 同一 內容의 命題를 限界分析으로 說明하려는 Ohlin 以後의 사람들과 대조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A국에서 축소된 Y財 生産에서 해방되는 것은 주로 b요소이며 이것이 X財 生産의 增大로 인하여 相對的 稀少性이 增大한 a요소에 代用되지 않으면 b요소의 상대가격의 下落에도 不拘하고 b요소는 失業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問題에 대한 Hckscher의 解答 또는 극히 古典派의 이다.

즉 X財의 生産에는 a요소가 많이 사용되고 Y財 生産에는 b요소가 많이 使用되므로 貿易開始와 더불어 A국에서는 X財에 比하여 Y財의 가격은 下落한다. 여기에 消費面에 있어서 Y財가 X財에 대응되는 現象이 일어난다. 例하면 貿易開始前에 A國에서 Y財價格對 X재가격이 2:1이며 이와 같은 가격체계에 따라서 X財 200單位 Y財가 100單位 生産되어 需給이 均衡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貿易開始에 의하여 上記와 같은 이유로 X財對 Y財의 가격화가 例들들면 國際價格比인 1대1로 되어 X財에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자 전과 마찬가지로 A國은 X財를 200 單位 Y를 100單位 生産하여 X財 200單位中 100單位는 B국에 수출하여 이와 交換으로 Y財 100단위를 B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 國內에서는 나머지 X財 100단위와 交換되며 그 交換比率는 1대1이다. A國民은 100단위의 X財대신에 값이 1/2인 Y財 100단위를 소비하게 되어 a, b 어느쪽도 失

業은 發生하지 않는다.

이 경우 X, Y間的 소비대용성은 문제로 하고 있지 않다.

이 生産要素價格均等化의 命題가 성립하는 한에 있어서는 財貨의 自由貿易은 生産요소 자체의 國際移動에 代贊되며 단 요소가 移動 不可能한 경우에는 재생산자체가 요소의 존재국에 재분포하게 됨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Heckscher의 이론에 대하여 木村保重 教授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요소가격균등화의 命題는 Heckscher에 있어서는 古典學派의 固定的技術係數의 前提上에서 있으며 이전제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가 各國에서 同一의 技術 또는 기술수준이라고 말한다면 생산요소간의 代用關係를 인정할 수 없다든가 하는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동일기술이라고 하는 대신에 생산함수의 형이 동일하다든가 요소간의 대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대신에 財의 물리적 성질상 요소의 대용관계에 있어서 기술적 제약이 있다는 형으로 이야기했다면 그의 命題는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점은 그의 論述에 한계분석이 들어있지 않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Ohlin 이후의 해결에 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4)

2, Bertil Ohlin

Ohlin은 가격현상을 그의 背後에 있는 絶對的實體 혹은 궁극원인을 추구하여 가치론까지 소급하는 설명 방법을 배제하여 순수가격론의 立場에서 全貿易現象을 價格形成理論에 統合하려는 사람이다.

Ohlin은 무역에 의한 요소가격의 均等化 命題를 Heckscher와 마찬가지로 支持하나 그의 理論은 후자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Heckscher가 기술수준이 동일 하다는 古典派的 傳統을 지켜 요소간의 대용관계를 인정하면 이 命題가 成立하지 않는다는데 반하여 Ohlin은 무역 이전에 각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다른 나라에 있어서 기술계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며 무역을 통하여 요소상대가격의 均等화와 더불어 技術係數의 均等化가 발생한다고 說明한다 換言하면 Heckscher는 同一財에 있어서의 생산기술이 生産要素相對價格이 다름에도 不拘하고 各國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各財의 비교생산비가 다르다고 하는데 대하여 Ohlin은 각국의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同一財의 技術係數가 다르며 이러한 결과 비교 생산비가 다르다고 한다.

兩者 다같이 비교생산비차에 무역발생의 계기를 찾음으로서 生産요소 상대가격의 均等化 傾向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奇異한 대립이 생기는 것을 木村保重 教授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Heckscher는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生産요소간의 代用關係를 認定하지 않는다. 이를 認

定한다면 요소상대가격에 차가 있다 하더라도 比較生産費差가 다르다고 하는 必然性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Ohlin은 요소간의 代用關係를 認定함과 同時에 同一財에 있어서의 生産函數가 각국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생산함수의 형을 決定하는 것은 그가 말한 生産의 물리적 조건이다. 이제 X財의 產生함수와 Y財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X財는 財의 物理的性質이 勞動을 많이 필요로 하고 Y財는 이에 반하여 土地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 勞動土地의 用役價格이 一定한 相對比를 갖는 場合に X, Y財 다같이 生産費極少를 目標로 해서 代用の 원칙에 따라 生産요소를 結合하는 결과 X재는 Y재에 비하여 노동을 Y재는 X재에 비하여 토지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兩財의 生産함수의 형이 A, B 양국에 있어서 同一하다고 Ohlin은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양국에서 生産요소상대가격이 다르면 技術係數가 다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양국의 X, Y의 비교생산비차가 一致하는 場合は 出現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A국은 廣大한 土地에 비해 노동인구는 적고 B국은 이와 반대라고 하면 다른 事情이 同一한 지대는 임금에 비해 A국에서는 헐하고 B국에서는 비쌀 것이다. 이것은 결국 A국은 B국에 비해 X, Y 兩財 다같이 그의 生産에 있어서 土地를 많이 사용할 것이며 이에 반해 B국은 X, Y를 生産하는데 A국에 비해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단 X재는 이의 물리적 성질에 의해 labor-intensive Y재는 land-intensive이므로 임금이 높은 A국에서는 X재의 生産비는 높고 B국에서는 헐하다고 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Haberler의 生産기술이라는 애매한 것이 生産의 물리적 조건으로 바뀌어지고 있다¹⁵⁾

Ohlin에 있어서는 고립된 個個의 지역이 무역에 의하여 이들을 포섭하는 大市場에 용해하고 이 大市場圈內의 전체의 수요 供給의 균형에 의하여 각生産요소의 균형가격이 성립한다 여기에 이 大市場을 구성하는 각국에 있는 各요소상대가격의 均等化契機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며 이 균형 과정에 있어서 각재생산비의 각국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최대의 원인은 각국에 있어서 各 요소의 존재량의 차이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무역은 요소가격 均등화의 경향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均等化 傾向에 限度의 存在如否 存在한다면 그 한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對하여 Ohlin은 다음과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무역을 통하여 무역권내에 있어서는 財, 요소의 雙方에 對하여 一物一價의 원칙이 실현되며 요소가 국제간을 移動하지 못한다면 각재생산은 그 生産에 있어서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요소인 자연적인 지역분포에 따라서 분포되며 (localization of industries) 결국 국제분업이 實現되고 이 localization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요소가격균등의 완전한 실현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¹⁶⁾

그리고 이 분업을 不完全하게 하는 이유로서는 수송비의 존재 기타 貿易障礙 등의 제도적

요인과 財에서 派生하는 요소수요는 다른 요소에의 결합수요라는 물리적 요인과의 존재를 들고 있다. 17)

三. 保護關稅가 分配에 미치는 效果

1. 保護關稅와 賃金과의 關係

Stolper-Samuelson은 「보호정책과 실질임금」¹⁸⁾이라는 논문에서 보호관세와 賃金과의 關係를 다루고 있다.

그의 이론의 要旨는 무역개시 전후의 양기에 성립하는 2個의 靜態均衡을 비교해서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가치의 변화에 의해서 實質賃金の 騰落을 2국 2상품 2생산요소를 예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2국을 한국 미국 2상품을 綿布 小麥 2요소를 노동 토지라하고 한국에서는 토지가 미국에서는 노동이 상대적 희소성을 가지며 綿布를 勞動集約的生産物 小麥을 土地集約的生産物이라고 하자 무역이전에 있어서 양국이 각각 고립해서 국내균형상태에 있고 또한 양국의 생산함수 및 수요함수가 별로 차이 없다면 자유경쟁하의 균형상태에서의 가격은 그 생산비에 일치하므로 이 2국의 고립적균형을 비교하면 미국에서는 소맥 한국에서는 綿布가 혈할 것이다.

무역이 개시되어 양생산물 가격비가 양국을 통해서 같게되고 이 새로운 생산물 가격비하에서 새로운 국내균형이 성립한다.

이제 미국에 있어서 무역전후의 2개의 균형을 비교해 보면 후기에는 전기에 비해 소맥 가격이 면포가격보다 騰貴하므로 토지집약적소맥의 생산은 擴大되고 노동집약적 면포의 생산은 축소한다. 이 生産轉換의 과정에서 후자에서 前者에의 생산요소의 이동은 있으나 集約性을 달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은 감소하고 그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지대에 비해 下落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로 임금의 상대적 하락)

이 저임금 고지대하에서는 代用法則에 따라 양산업을 통하여 토지노동의 사용비율이 변화하여 생산기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토지에 대하여 노동에 의한 代贖가 행하여 진다. 즉 노동토지의 총사용량—존재량—은 불변임으로 토지집약생산의 擴大 노동집약생산의 축소는 전산업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勞動代贖를 통하여서 만 실현된다. (完全雇傭前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생산에 있어서 토지노동의 사용비율—집약성—과 양산업 전체를 통하여서의 사용비율과를 混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산업을 통하여 노동의 토지에의 代贖가 계속되는 결과 노동의 한계생산물 가치는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위에 균형하에서는 양산업을 통하여 노동한계생산물 가치의 균등이 실현됨으로 이들 2개의 어느쪽 생산물을 가지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무역전에 비

해 미국의 실질임금은 下落할 것이며 이는 또한 국민소득중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전체가 받는 relative share의 감소를 결과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결론을 노동이 상대적 희소성을 갖는 나라는 무역개시에 의하여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나라는 이상의 전제에서는 關稅를 신설함에 의하여 노동자가 입는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경우 무역의 障礙에 의하여 국민소득전체는 축소된다 하더라도 노동의 실질임금은 절대적으로 증대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은 Stolper Samuelson의 이론인 바 여기에서 우리가 吟味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보호관세가 설정되면 반드시 관세를 포함한 수입품 가격 또는 수입대용국산품 가격이 수출품 가격에 비해 높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왜 그러냐하면 관세를 포함한 수입품 가격 또는 수입대용국산품가격이 수출품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擴張되고 후자를 생산하는 산업은 축소하여 생산요소는 후자에서 전자로 移動하고 각요소의 상대가격의 무역의 상태로 되돌아 오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保護關稅設定에도 不拘하고 국내에 있어서의 수입품가격과 수출품 가격과의 比率이 不變이거나 혹은 수출품가격이 相對的으로 등귀하면 前者의 경우는 생산요소의 移動은 일어나지 않으며 後者の 경우는 關稅設定前 보다도 수입대용산업의 축소 수출품산업이 擴大된다. 따라서 稀少生産要素의 relative share가 不變이거나 감소된다.

전술의 예를 빌리면 미국은 수입품인 면포에 관세를 부과하므로써 자유무역전에 比해 國內에 있어서의 綿布의 가격이 小麥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稀少生産要素인 勞動의 代價인 賃金은 상승하고 따라서 노동자의 국민소득분배상의 지위는 향상되나 양생산물의 가격비가 不變이거나 혹은 여전히 綿布의 값이 철한 경우에는 전기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Stolper-Samuelson의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사람은 Metzler이며 다음에 이를 고찰하기로 한다.

2. 需要彈力性 및 關稅收入支出 方向을 고려한 경우의 保護關稅效果

Stolper-Samuelson의 論文에서는 保護關稅를 設定하는 경우 수입품 국내 가격이 수출품국내 가격보다 높은 경우만을 고려한데 對하여 L. A. Metzler는 전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保護關稅를 설정하더라도 수출품 국내가격이 수입품국내가격보다 높은 경우까지 분석하고 있으며 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¹⁹⁾

Metzler 관세설정이 설정국내에 있어서의 수입경쟁품가격과 수출품가격과의 비를 변화시킬 때 방향이 상반하는 2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 제일의 효과는 관세에 의하여 수입품가격이 등귀하므로써 수입품경쟁산업의 지위가 유리화 해지는 것이며 第2의 효과는 관세장벽에 의하여 수출이 저지된 상대국이 그의 수출품가격을 인하하거나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관세설정국의 수입품가격이 引下되어 交易條件이 關稅設定國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가령 전자를 관세설정으로 인한 제1차 효과 후자를 제2차 효과라하면 이 양효과의 差引이 수입품 국내가격을 수출품 국내가격보다 등귀시키지 않은한 Hechscher Ohlin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먼저번 예에 의하여 본다면 미국은 그 수입품인 면포에 對하여 50%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자 그리고 자유무역시대의 소맥 면포의 국내가격비가 1대1이 었다고 하면 양자의 국제가격비가 不變일때는 1.5대1로 되어 관세설정결과 수입품가격이 下落하여 Hechscher-Ohlin의 효과는 발생하나 회소생산요소인 노동의 지위는 악화되어 국민소득중 노동이 受取하는 relative share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수입품 국내가격이 수출품 국내가격보다 높을 것인가?

이에 대해 Metzler는 1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 (전기에에서는 미국의 소맥에 대한 한국의 수요)가 탄력적일때 수입품 국내가격이 수출품 국내가격보다 높아 Stolper-Samuelson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관세를 설정함에 의하여 회소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은 하락하고 국민소득중의 상대분배분은 감소하여 Stolper-Samuelson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Metzler는 상대국의 자국수출품수요의 탄력성의 대소가 관세의 국민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관세수입이 수출품에 지출되느냐 혹은 수입품에 지출되느냐 하는 문제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① 관세수입이 전부 수출품에 지출되는 경우 ② 관세수입이 전부 수입품에 지출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수출품에 대한 상대국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①의 강함에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품가격은 수출품가격에 비해 하락하고 ②의 경우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품가격은 수출품가격에 비해 등귀해서 전자에서는 Stolper-Samuelson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으나 후자에서는 타당하게 된다.

Metzler는 이 양극단의 중간(한계수입성향이 1보다 적고 0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관세설정에 不拘하고 국내수출품가격비가 불변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즉 이 경우는 국내생산요소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 結 語

지금까지 필자는 분배의 意義 生産要素質의 분열에 의하여 무역론에서 국내분배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과 다음에 Hechscher-Ohlin의 명제를 설명하고 이 명제를 보호 관세에 적용시키는 이론을 살펴 보았다.

이 명제의 諸制約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무역자유화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나라는 일반

적으로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인상 자본의 代價인 이자, 이윤이 인하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복잡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렇다고 단정하기는 곤란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자유화가 임금재의 수입을 擴大하면 실질임금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나 아직 우리나라 무역자유화는 임금재에 대한 輸入擴大가 별로 되어있지 않으므로 무역자유화에 의한 실질 임금의 인상은 곤란할 것이다.

이상의 이론은 너무나 형식적인 분석에 불과하며 필자의 현재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장래에 기약할 수 밖에 없다.

— 註 —

- 1) 木村保重 ; 貿易と分配, P.1
- 2) 木村保重 ; 貿易と分配, P.2.
- 3) J. M. Clark ; *Distribution*, Readings in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P. 58.
- 4) A. C. Pigou ; *Economics of welfare* 4ed. P. 656.
- 5) 木村保重 ; 貿易と分配, P 12.
- 6) 戶田正雄譯 ; 「ミル 經濟學原理」第二分冊, PP, 65-66.
- 7) A. C. Pigou ; *Economics of welfare*, PP. 657-658
- 8) A. Hansen ; *Economic policy and full employment*, PP. 15-16,
- 9) J. E. Cairnes ; *Some leading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ly expounded*, PP. 66-67.
- 10) J. E. Cairnes ; *Some leading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ly expounded*, P. 323.
- 11) Gottfried von Haberler ;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P. 193-194.
- 12) Haberler ;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P. 194-196.
- 13) Haberler ;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P. 196-198.
- 14) 木村保重 ; 貿易と分配, PP, 78-79.
- 15) 木村保重 ; " , PP. 87-88.
- 16) Bertil ohlin ; *Interregional and international trade*, P. 38.
- 17) Ditto, P. 38
- 18) W. F. Stolper and P. A. Samuelson ; *Protection and Realwage*, Readings, PP. 333-357.
- 19) 木村保重 ; 貿易と分配, PP. 118-124 참조.